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987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932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574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 채권편입비: 60% 이상
- 주식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1월 05일)

- 클래스 C : 2011년 11월 01일

- 클래스 C-E : 2017년 08월 18일

- 클래스 C-F : 2012년 03월 30일

벤치마크 KOSPI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4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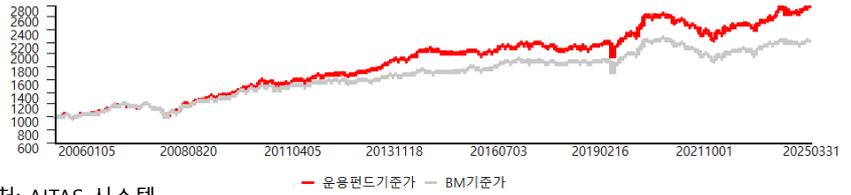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54%	2.34%	2.46%	4.35%	11.44%	10.10%	31.87%	172.16%
클래스 C	-0.60%	2.14%	2.06%	3.52%	9.68%	7.48%	26.71%	63.79%
클래스 C-E	-0.58%	2.21%	2.19%	3.80%	10.27%	8.35%	28.41%	24.58%
클래스 C-F	-0.56%	2.27%	2.31%	4.04%	10.79%	9.13%	29.94%	63.65%
벤치마크	-0.58%	2.17%	0.17%	0.52%	7.25%	4.77%	22.48%	119.48%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자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원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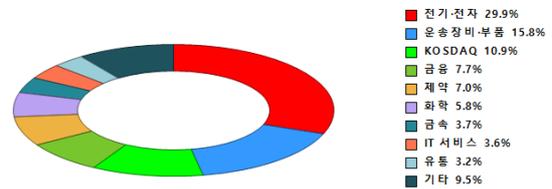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3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3월말, 주식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7.6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2.6
SK하이닉스	전기-전자	8.0	알테오젠	KOSDAQ	2.2
현대로템	운송장비·부품	5.2	셀트리온	제약	2.2
POSCO홀딩스	금속	3.3	한화비전	금융	2.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3.0	하이브	오락·문화	2.1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8% (판매 0.535%)
 - 클래스 C-E : 총 연 0.533% (판매 0.268%)
 - 클래스 C-F : 총 연 0.295% (판매 0.03%)
- (공통사항)
운용 0.23%, 신탁 0.02%,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KOSPI는 전월 대비 2.04% 하락한 2,481.12pt, KOSDAQ은 9.56% 하락한 672.85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고, 이와 달리 유럽과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연기 소식과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세를 나타냈으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공매도 재개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월 대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반도체, 통신서비스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전자부품과 제약 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87% 상승한 1,466.5원을 기록하며 원화 약세를 나타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2.47% 상승한 71.4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국내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1.28조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각각 2.15조원, 2.02조원 순매도했습니다.

전월 미국 채권시장은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혼재되며 등락했습니다. 월초 2월 ISM 제조업지수가 예상치 하회와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미10y 금리가 4.15%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파월 의장의 경기침체 가능성 일축, 월 중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 발표 이후 인플레이 경계심 재부각으로 4.3%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3월 FOMC에서 QT 규모 축소 결정, 파월 의장의 도비쉬한 기자회견 등으로 미 국채금리는 다시 4.2%대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미 관세정책 영향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경 논의 재개와 함께 2월 금통위의 사록에서 가계대출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금통위 우려 확인 등 2분기부터 실적이 조정으로 국고채 금리가 전월대비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 관세정책 및 현재 선고 일정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월중 달러 환율 상승 압력 나타난 것 또한 채권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대비 포함인 2.560%,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월대비 6.7bp 상승한 2.767%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국내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해 한국의 불확실한 교역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4월 공매도 재개로 인해 추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 고물티플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점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1~2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내 증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2분기부터 가격 인상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실적 상향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전 기조로 전환하고 향후 유럽 지역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의 군비 지출 확대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산 업체 수혜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며 중국의 외교 정책 변화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외교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에게 강압적으로 일관한 전랑 외교였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유화책을 펴는 정책 전환 시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6년 사드 배치 이후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한령 정책의 해제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미디어/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격 조정폭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높은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며 중국의 감산 가능성이 커진 철강 및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 오버워잇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우려감으로 인해 펀더멘탈 대비 가격 조정이 컸던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준은 3월 FOMC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심리부진과 실물경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 수준은 높게 유지되며 당분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소매판매 둔화와 제조업 지수 약세가 확인되고 있어, 고용지표 둔화가 확인되면 금리 하락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추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인 가운데 국내 지표 둔화세가 확인되고 있고 4월초 본격적으로 시행될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기대가 지속될 점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달러-원 환율 상승 흐름은 금리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결정 이후 추경 시기나 규모, 금융 시장 여건에 따라 금통위 전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 3년 2.45~2.70% 전망, 국고10년 2.65~2.90% 전망하며, 듀레이션 확대 대응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